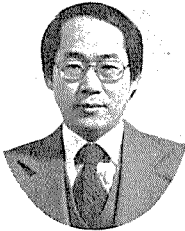


1982년 世界石油展望



李 會 晟

(韓國動力資源研究所
政策研究部長·經博)

原油價 下落은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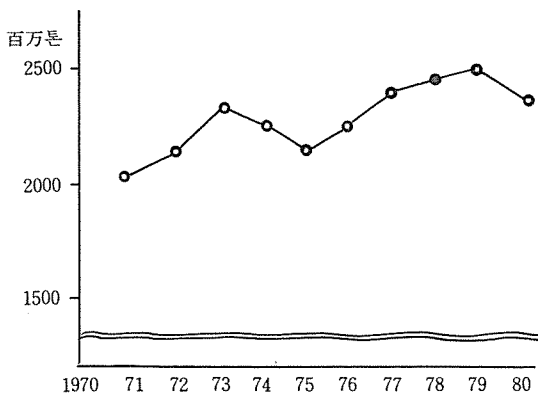
石油展望이 어느 때보다도 혼미스러운 시점이다. 지나간 2년에 걸친 石油需要 감소가 금년에도 계속 될는지 예측을 불허케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價格에 대한 方向도 속단을 불허케 한다. 현존하는 여러가지의 市場情報를 종합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結論에 도달하게 된다.

- (1) 石油需要의 增加는 기대하기 어렵다.
- (2) 그러나 原油價格이 下落하지는 않을 것이다.

二律背反의 일지는 모르나 금년도 世界石油展望은 이 두가지 현상으로 要約될 수 있다.

지난 2년동안의 石油需要減少는 모든 예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물론 需要減少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圖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73년 第1次石油波動이 있는 후, 需要는 23億 4,300萬톤에서 1974년 22億 6,200萬톤으로 下落했으며, 그 다음 해에 다시 21億 9,800萬톤으로 下落했다. 그 후 需要는 점차 회복되어 1979년 25億 500萬톤으로 피크를 이룬 후 1980년 이란事態의 영향으로 需要가 무려 13億 3,000萬톤이나 減少했으며, 1981년에는 다시 9,500萬톤의 減少가 확실시되고 있다. 1980년 한해동안의 需要減少分은 1次波動時 2년동안의 減少分과 비슷하다. 현재의 石油消費水準은 1973년이전의 水準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圖 1) 世界石油需要推移



註: 東歐(圖 제외)
資料: BP, BP statistical Review of the world oil Industry
1980

石油消費의 感少現象

石油消費의 이와같은 감소는 價格上昇으로 인한 節約과 代替의 결과다.

1969~1973년의 기간동안 全世界 에너지 消費增加分의 78%는 石油였는데 비해서 1973~1980년의 기간에는 7%에 그쳤다. 에너지-GNP彈性值도 前者의 기간에는 0.95였는데, 그 후 0.44로 下落했다. 만약 彈性值가 0.95로 유지되고 石油의존도가 78%로 유지되었다면, 1973~1980년의 기간동안 石油消費增加는 3,100萬톤이 아니라 7억 1,700萬톤이 되었을 것이다. 節約과 代替에 의해서 무려 6억 8,600萬톤이 減少한 것이다. 石油依存度의 減少는 代替의 結果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代替에 의한 石

油消費減少는 약 3億톤이 된다. 즉 節約과 代替의 効果는 거의 비슷하나 전자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價格上昇이 需要減少의 效果를 실현하는 데에는 時間이 걸린다. 물론 價格上昇과 함께 不要不急한 消費와 낭비적인 소비가 自制되어서 倅각적으로 需要減少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需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에너지使用機器의 熱效率性이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진다. 에너지價格上昇에 따라 에너지需要者는 열효율성이 우수한 기계 설비를 選好하게 되므로 熱효율이 저조한 기계 설비는 生産公程에서 앞당겨 은퇴하게 된다.

이와같은 자본재의 代替는 時間을 要하게 된다. 1980~1981년의 2億 2,500萬톤 減少의 상당부분은 1973년 이후부터 서서히 이루어진 高熱效率지향적 자본재代替의 效果라고 볼 수 있다. 時間이 지나감에 따라 이 效果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1982년의 需要가 81년보다 특별히 많으리라 예상되지 않는다. 景氣回復이 작년보다 활발하다 할지라도 (3.0%성장 대 1.5%성장) 앞에서 지적한 代替效果때문에 需要가 꼭 증가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1981년을 살펴보면, 石油消費는 말할 것도 없고 에너지總消費도 1.5%의 世界經濟成長에도 불구하고 1%나 감소했다. 물론 올해도 81년과 同一하리라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사실은 같은 量의 에너지, 石油를 가지고서 과거보다는 더 많은 量의 財貨를 生産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重質油部門에서 石炭 및 原子力은 重質燃料油市場을 계속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은 石油보다는 오히려 이들 代替에너지의 수요를 자극시키는 效果를 가져올 것이다. 輕質油부문에서 輸送手段의 에너지효율성증가 때문에 수송활동이 증가한다 해도 輕質油의 需要가 이에 비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금년도 주요 石油消費國의 수요는 1~5% 정도 減少한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需要가 이 정도까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成長勢를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既存 精油施設의 整備

이와같은 사실은 精油處理용량의 減少추세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石油需要 약화때문에 精油

新規投資는 대부분 연기되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용량초과때문에 이제는 신규투자 억제에 소극적 對策에서 既存遊休施設의 정비를 통한 보다 적극적 對策으로 임하게 되었다. 현재 OECD지역 精油施設 초과용량은 그 비율이 약4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 중 35%의 시설은 永久遊休化될 전망이다. 따라서 老朽化된 시설,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시설, 重질분해장치를 갖추지 못한 시설들은 대폭폐지, 정비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결과 유럽의 精油施設은 1985년까지 약 400만 B/D의 용량이 감소되어 1,600만 B/D의 용량으로 축소될 展望이다. 日本도 용량초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용량의 10%를 금년까지 폐지시킬 계획이며, 美國은 3년 이내에 약 20%에 해당하는 용량을 폐지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폐지율로서는 용량초과가 解消될 것 같지 않다. 즉 폐지율이 더 下落되는 것이 필요하나, 상당수의 정유시설이 合作投資로 형성되어 있고 各投資者는 대부분이 綜合石油会社이기 때문에 시설폐지에 따른 利害得失은 各투자자에 따라 너무 달라서 施設減少가, 바라는 量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우디의 價格調節기능 健在

需要의 弱화가 반드시 價格의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사우디의 價格조절기능이 健在하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현재 基準公示價 34\$/B를 1982년말까지 유지시키겠다고 누차 천명했다. 이를 위해서 供給量을 7백만배럴로 감소할 것이라고 야마니石油相은 公言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우디의 1982년도 財政계획이나 經濟開發 5個年計劃은 공급량이 700萬 배럴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 가능성을 如實히 보여주고 있다.

즉 1982년도 財政計劃의 기본골격은 原油價 32\$/B, 供給量 620萬배럴을 근간으로하여 作成되었으며 경제개발계획의 경우 자금총소요액은 약 4,000億달러인데 이것은 原油價 34\$/B 기준, 하루 650萬배럴의 공급량에 해당된다. 사우디는 1년여에 걸친 供給超過를 초래하면서까지 油價單一化를 이룩했다. 기준가격유지를 위해서는 生産減少를 불사하겠다는 야마니 石油相의 發言은 그대로 받아들

여져야 할 것이다.

사우디는 금년도 世界石油需要를 1日 4,700 萬 배럴로 推定하고 있다. 이것은 금년보다 약 100萬 배럴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供給은 非OPEC지역에서 2400萬배럴, OPEC에서 2300萬 배럴로 예상되고 있다. OPEC 내의 배분은 사우디 700萬배럴, 其他産油国 1,600 萬배럴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될 경우 群小産油国의 市場은 작년의 1200萬배럴에서 무려 400萬배럴이나 擴張된다. 이것은 지금과 같은 需要 弱화時 가격하락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사우디의 自國供給量에 대한 尤동적 태도는 금년도 需要가 예상하는 것만큼 紧张되지 않아도 價格은 現水準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우디가 이처럼 基準公示價 유지를 중요시하는 것은 政治的 요인 때문이다.

基準公示價가 하락한다면 OPEC 카르텔 매니저로서 사우디는 政治的 책임을 아랍사회에서 모면할 수가 없다. 經濟的으로도 基準價 下落은 國際原油市場에 보다 많은 불확실성을 산출시키기 때문에 소비국에 바람직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생산기반의 80% 이상이 中東에 집중되어 있고, 價格이 生産費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회소가치와 공급독점력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基準價 下落은 미래 가격동향에 불확실성과 不安感만을 提高시키게 된다. 비록 일시적이라도 價格이 하락되면 소비대중의 절약의 욕도 감퇴될 것이므로 미구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를 自超하는 셈이 된다. 基準公示價는 原油價格의 절대적 하한선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強硬派産油国임김 줄어들어

原油價格 動向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는 소위 強硬産油国의 태도와 原油在庫 상황이다. 강·온건과간의 대립은 산유국별 매장량의 차이, 原油質의 차이, 石油收入金 용도의 차이, 未來수요 전망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다.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聯合國등 온건산유국의 石油可採年數는 北아프리카의 강경산유국보다 월등히 길기 때문에 前者의 原油政策은 후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形成된다. 매장량이 적은 産油国은 하루라도 빨리 높은 價格으로 原油를 생산하여 現金化하는 것

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石油資源의 價值를 극대화할 수 있어 國益에 보탬이 된다고 계산하고 있다. 反面에 매장량이 풍부한 産油国은 原油의 지나친 高價化는 石油需要의 展望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고, 이 結果 自國原油의 가치는 하락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原油價의 적정수준에 대해서 양자는 견해를 달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온건산유국은 石油收入의 상당부분을 美國 英國, 日本등 先進國의 國債, 社債, 증권, 부동산, 실물투자 등에 투입하여 왔기 때문에 原油의 高價化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와 인플레이는 그 영향의 일부가 이들 온건산유국에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므로 油價引上에 대해서 강경산유국과 同一한 보조를 취할 수는 없게 되어 왔다.

그동안 油價上昇은 北아프리카의 강경 산유국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이에는 大消費地와 근거리에 위치한 利点, 生産原油가 良質의 輕質原油라는 利点 등이 작용했다. 그러나 歐美지역의 經質油 수요감소는 이들 北아프리카産 原油의 수요에 많은 타격을 주었다. 지난 2년동안 價格引下 壓力을 생산감소로 버텨오다 드디어는 작년 11월 OPEC 회의에서 價格引下를 동의하고 말았다. 금년도에 輕質 製品의 수요가 특별히 신장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 北아프리카 産油国이 금년에 價格引上을 주도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

在庫水準의 正常化

초과재고량은 지난 여름 7億배럴에 달했는데, 지금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利子率의 上昇으로 말미암아 재고유지비가 배럴당 年 \$ 6 ~ \$ 11에 이르기 때문이다. 1982년 초까지는 초과재고량이 1~2億배럴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며, 여름까지는 재고수준이 정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IEA는 超過在庫가 감소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으나 需要가 감소하고 있고 산유국의 剩餘生産能力이 현재와 같이 충족한 상황하에서 이것은 杞憂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需要·價格展望은 中東이나 기타 분쟁지역이 심각한 돌발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리라는 大前提下에서 작성되었다. 전쟁, 천재지변 등의 예측은 과학적 분석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그런 類의 異變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할 뿐이다.*